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최은숙 엮음, 작은숲, 2021

손동유(Sohn, Dong You)*

이 책은 공주여자중학교 ‘청소년 마을지기 동아리’ 학생들이 쓴 공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아리를 지도한 국어교사 최은숙이 엮어 냈다. 1부 ‘우리 동네’는 사라진 옛 마을 지막골 이야기와 공주여중이 있는 교동, 그리고 학생들이 사는 마을 이야기가 담겨있다. 2부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는 감영길을 비롯해 나만 알고픈 길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 이야기가 담겨 있다. 3부 ‘엄마 아빠의 나 때는’은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인터뷰하여 공주의 옛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 있다. 4부 ‘어제의 오늘, 오늘의 어제’는 제민천과 공산성, 무령왕릉과 같은 사적지, 그리고 송장배미에 다녀와서 쓴 글들을 모았다.

교사는 “삶의 기반이 되는 장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곳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관계가 허약한 삶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도 권리도 온전하게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함께 지역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로 했다. 물론,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공주에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서울은 물론 런던으로 뉴욕으로 헬싱키로 프라하로 모스크바로 인도로 날아다니며 좁은 틀에 갇히지 말고 살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ani.dysohn@gmail.com).

지, 스스로 삶의 터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품 있는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움을 경험한 학생들은 앞으로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한 지역의 소중한 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10대 청소년의 공주 아카이브’로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거나 도움을 주었다.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척, 지역의 문화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 행정관청과 직원들이 학생들의 지역 학습에 내용, 공간, 기회,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 힘입어 학생들은 시간을 넘나들며 실로 많은 선대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소재와 방식도 다양하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까운 옛날을 보낸 사람들과는 뚫어진 맘비를 때워서 다시 쓰던 이야기, 학창시절의 놀이, 일탈, 학교생활, 장래희망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며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양식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유치하거나 단순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월말고사, 일일고사를 봤다는 선생님 학창시절을 듣고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가슴 쓸어내리면서도 당시 숨 가쁘게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도 어려웠겠지만, 시험문제를 내야 했던 선생님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한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그 시절의 일화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1921 공주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달빛이 가장 빛나던 그 시절의 밤은 얼마나 깜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약한 불을 켜놓고 책보면 눈 나빠진다고 잔소리하는 자신의 엄마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의 일상 환경과 오버랩한다. 그저 그런 옛

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 가지 사건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먼 옛날 사람들과는 그들의 삶의 흔적을 좇아서 시대를 상상해 보면서 역사적 사실이 전하는 교훈을 배우며 학생들 시각에서 평가와 바람을 말하기도 한다. 무령왕릉 근처 금성여고 인근에는 용뿔이라고 불리는 못이 있다.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논을 ‘송장배미’라고 부른다. 동학농민군 최후의 전투로 알려져 있는 우금티 전투과정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희생된 농민군 다수가 전사한 곳이다. 논배미에 죽은 농민군들의 시체가 쌓였다고 해서 송장배미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곳에 대하여 글을 쓴 학생은 왕릉에서는 제사도 크게 지내고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어서, 뭇가 훌륭한 분들이 묻힌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며,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살다 왕으로 죽었을 뿐이지 왕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러면서 지역탐방을 도왔던 공주대학교 지수걸 교수의 말을 참고해서 “송장배미의 죽음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평민들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싸우다 죽은 장소이다. 돌보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죽임이 되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이 책의 재미와 의미는 3부 ‘엄마 아빠의 나 때는’에서 최고로 드러난다. 부모님들과의 구술인터뷰를 통해 직접 부모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겼다. 여느 가정에서 나눌 법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필자가 주목해서 본 것은 학생들의 질문이었다. 아마도 예전 사진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당시 사진 찍던 방식과 분위기, 어린 시절 친구들과하고 뭐 하고 놀았는지, 지금과는 다른 교복, 체벌, 도시락, 시험 등의 학교생활, 일탈을 포함한 방과 후 일상, 의식주와 관련된 당시 형편, 집안일을 도왔던 일화 등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거의 공통되게 ‘부모의 어린 시절 꿈’을 궁금해 하는 대목에서는 이미 부모세대가 된 필자로서는 글로 표현하기 힘든 묵직한 먹먹함이 다가왔다.

학생들이 지역의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곳곳에 묻어 있는 선대들의 삶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기성세대로 부티는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소중한 학습 기회라는 점에 동의한다. 삶의 근원을 알아간다는 것, 현재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천착한다는 것은 정체성, 역사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자세를 갖게 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이촌향도 현상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일상화 된 현 시대에 청소년들이 지역을 보는 눈과 삶의 태도를 학습한다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지도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참 좋은 책 한권을 만났다.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술술 읽힌다. 그럼에도 책을 덮으며 까슬거리듯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다. “아카이브”라는 표현이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에서 많은 사진을 접하거나, 직접 촬영해서 새로운 사진기록을 만들었을 것 같다.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듣고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해서 글로 옮겼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삶의 흔적으로서의 기록을 접했을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지역을 조사하고, 배우고, 이해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적어 책으로 펴내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책을 만드는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작업은 ‘아카이브’를 표방한 만큼, 활동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 기록물들을 나중에 책은 물론이고 전시, 다큐멘터리, 창작 소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책 말미에 학생들이 다룬 사진, 구술인터뷰 기록 등을 목록으로 보여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 학생들이 만들거나 모은 기록을 학교, 관내 문화기관, 행정관청의 기록관에서 취합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카이빙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법과 제도,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주민의식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현상이고 시대정신이 반영된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그라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성 사업으로 주민 아카이빙을 하거나, 책 한권 낸 것으로 아카이브를 만들었다고 간주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책은 인류가 개발한 훌륭한 문화산물이며, 아카이빙을 위한 유용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책 한권 만들었다고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담겨져 가는 곳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일상의 문화자원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이 더해져 또다시 새로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재탄생 될 것이다.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학교, 문화기관, 행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를 내기 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받아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한쪽에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이 책 한권에 담히거나 일회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명실상부한 ‘아카이브’가 만들어져 차곡차곡 쌓여가기 바란다.